

2007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선녀와 나무꾼

2006. 여름마당춤판 **男** 공쥐 vs 딸쥐 리뷰

2층이라 무대위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으나 자리에 앉아 어깨춤이 절로 덩실덩실...

너무 신명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끝나고도 한동안 객석을 떠나지 못했어요.
사실 아이보다 엄마인 제가 더 반했죠. - 박혜경

서울에 비해 부산의 공연 문화가 열악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공연을 소개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 이윤이

아름다운 춤사위와 역동적인 소리, 그리고 관객들이 어우러진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거침없이 카리스마를 보여주신 모든 무용단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박성하

2007. 7.

효심 깊고 착한 나무꾼은 어느 날 나무를 베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숨겨주게 된다. 사슴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녀들이 꾀질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며 선녀의 날개옷을 숨기고 절대 날개옷을 주지 말라고 당부한다. 나무꾼이 그와 같이 하자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게 된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된다. 여러 자녀들을 낳고 살며 인생사에 어려움을 겪던 선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여 어느 날 우연히 날개옷을 찾게 되자 홀연히 하늘로 돌아가 버린다. 실의에 잠긴 나무꾼에게 사슴이 다시 나타나 하늘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때 하늘로 올라가라고 알려준다.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 선녀와 재회한다. 한편 선녀 역시 하늘에서 부모님을 상봉하였으나 지상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로 안절부절하고 있던 참이었다. 선녀의 부모는 쾌히 꽃마차를 내어주며 둘이 함께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당부한다. 선녀와 나무꾼이 집으로 돌아오자 노모와 자녀들이 반기며 온 가족이 화합의 잔치를 벌인다.

작 품 구 성

프롤로그 :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

1막. 사슴의 보은

- 1장. 나무하러 가세
- 2장. 쫓기는 사슴을 숨겨주다
- 3장. 사슴의 보은

2막. 선녀와 나무꾼의 만남

- 1장. 꾀질방 풍경 I
- 2장. 꾀질방에 온 선녀
- 3장. 꾀질방 풍경 II : 장기자랑
- 4장.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는 나무꾼
- 5장. 선녀와 나무꾼의 만남

3막. 대가족을 이루다

- 1장. 선녀와 나무꾼 대가족
- 2장. 하늘에 계신 부모님!
- 3장. 선녀의 승천
- 4장. 실의에 잠긴 나무꾼
- 5장. 지상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선녀

4막. 부부의 귀향

- 1장. 사슴의 도움
- 2장. 나무꾼, 두레박 타고 올라가 선녀와 재회하다
- 3장. 천마를 내어주는 선녀의 부모님
- 4장. 부부의 귀향. 다시 지상으로

피날레 : 우리는 한 가족

주 역



선녀 김진영



나무꾼 허태성



어머니 김병주
(부수석)

Staff

훈련지도 이윤희

출연 부산시립무용단 전단원

기획 박소윤 홍보 김태훈 소품 안정숙